

Greetings from Cambodia!

Newsletter for the Koo's Journey

December 2014

감사할 내용들:

1. 2014 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가족이 주안에서 화목하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 사역가운데 보람과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손 모음 내용들:

1.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학생과 의사들이 **ㅎㄴ님**을 아는 믿음과 지식에 자랄수 있도록.
2. 가족의 건강과 **ㅎㄴ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도록.
3. 앞으로 해야하는 이사와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아이들의 학교를 정하는 일에 순적하게 인도해주시도록

Giving:

Please write a check to:

UofN Kona Foundation, 75-5851
Kuakini Hwy #256, Kailua Kona, HI
96740

Payable to "UNKF" (stands for
"University of Nations Kona
Foundation")

Missions Account Number: **5506**

For **recurring gift** and donors outside
the U.S., please contact **David Koo** at
davidkoo1975@gmail.com for the **EFT**
form to fill out to send to the donor
office in UofN Kona.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



제가 일하는 곳은 **CSI MMC** 라는 병원입니다. MMC 병원은 가난한 캄보디아인들을 돕기 위해 세워졌고 또한 갓 졸업한 의사들의 수련 장소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치과 병동은 위쪽 코너에 있습니다. 저희 또한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캄보디아는 아직 많은 금홀 사역이 필요하므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체계로 남겨두면 안 되기에 미래를 이끌어 갈 치과의사들을 수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따 (Dr. Buntha) 선생님은 졸업한지 일 년이 갓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원제 **ㅅㄱ사님** 아래에서 꾸준히 배워 왔기에 실력이 좋고 뛰어납니다. **싸코안 (Sakhoin)**은 졸업반입니다. 거의 졸업할 때가 다 되었기에 지금은 풀타임으로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차나 (Rachana)**는 가장 오래된 스태프이며 또한 메니저입니다. 열정과 사랑으로써 팀을 보살피는 엄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레카나, 깐냐**, 그리고 **티어리**는 간호원들입니다. 모두들 조원제 **ㅅㄱ사님** 아래에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각자 맡은 일에 아주 뛰어납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또한 매주 수요일은 함께 아침 예배를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 사랑과 하나됨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중에는 저희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ㅅㄱ사님**들이나 **모사님**들의 소개로 저희에게로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은 간접적으로 **ㄱ회**개척을 돕는 의미도 큼니다. 치대생들과 치과의사들을 돕는 것도 정말 기쁩니다. 처음에는 제게 다가 오는 것을 많이 수줍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와서 질문도 하고 배움을 구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두손 모으는 것은 이 분들이 **ㅎㄴ님**을 깊이 사랑하며 또한 담대히 자신들을 그들이 속한 곳에서 나타내어 그들의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와 원이의 홈스쿨



저희는 지난 몇 개월동안 사랑이와 원이에게 홈스쿨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주 과목인 성경과 산수,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주제들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또한 근처의 학교에서 미술과 수영을 배워 왔습니다. 홈스쿨을 하는 다른 가정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어울려 사회성을 형성해 갑니다. 함께하는 다른 네 어머니들은 이미 노련한 스승님들이십니다. 저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에 있구요. 이 분들과 함께 있으면 머리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가 홈스쿨을 하는 이유는 저희의 앞날을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는 내년 여름에 쿠르디스탄으로 떠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4 월과 5 월에 그곳의 도.혹이라는 도시를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이들이 다닐만한 학교를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그곳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홈스쿨을 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직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아이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동안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신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걸음 걸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여정은 저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저희를 사랑해 주세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구 하영, 원, 사랑, 소연, 금성 드림

